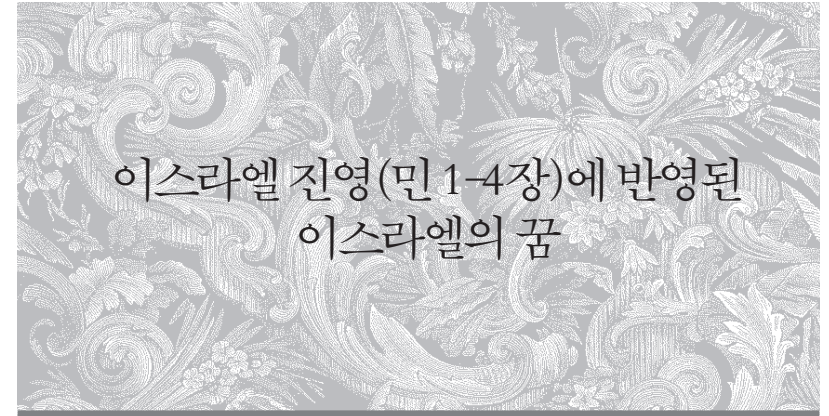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rhetorical intentions of the priestly redaction
exhortation to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establishing the social order
prohibiting the intermarriage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



한동구(평택대)

1. 서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나산에 도달하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나광야를 떠났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이동)성전의 건립에 대하여 보도하고(출 25-31, 35-40장), 레위기에서는 제의규정(레 1-7장), 각종 정결규정(레 11-15장) 및 성결규정(레 17-26장)을 제정한 것을 보도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새로이 편성하고(민 1-4장), 이어 다양한 정결규정 및 성결규정(민 5-10장)을 부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민수기 1-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진영의 조직은 그 중심에는 회막(만남의 장막)이 있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외곽에 그 밖의 다른 지파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진영이 배열된 것으로, 일종의 거룩한 질서를 나타낸 셈이다.¹⁾ 시내산에서의 인구 조사, 진영의 조직 및 질서 부여는 다시금 시작하게 될 광야에서의 행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야에서의 행군을 편리하게 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훨씬 넘어선다. 물과 식량이 제한된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민 11:21) 이동하기 쉽도록 진영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기에서 추구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있게 될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 및 정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룩해야 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시내산에서부터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수기 1-4장을 정밀히 주석함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조직과 질서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가 추구한 이상적인 국가상 및 정치-사회적 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학적 의미를 규명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다.

민수기 1-4장의 형성 연대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은 형성연대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단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²⁾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내의 여러 전승들이 내용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형성 연대를 유추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민수기 1-4장에서 추구하는 이스라엘 진영은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진영의 상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시대의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의 이상적 국가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묘사된 이스라엘 진영의 상의 삶의 자리와 형성연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된 구약성서의 다른 전승들 및 사상들을 전통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민수기 1-4장과 구약성서의 다른 문헌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민수기 1-4장의 삶의 자리와 형성 연대를 유추하고자 한다.

또 민수기 1-4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진영의 배열 형태에 나타난 '온-이스라엘 사상'이다. 필자는 이것을 역대기의 후기 편집층의 중요한 신학적 특징인 '온-이스라엘 사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진영의 배열은 역대상 1-9장의 족보의 구조와 비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수기 1-4장에 반영된 레위인들의 지위는 연대 결정에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2. 민수기 1-4장의 분석

1) 인구조사

(1) 1장의 인구조사

이스라엘 진영을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파악해야 했다. 이를 위해 민수기 1장에서는 지파 지도자의 명단(민 1:4-16)과 함께 조사된 각 지파의 인구를 제시한다(민 1:1-3, 17-47).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의 인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병력을 조사한 것이다. 민수기 1장 2a절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의 총수를 가문별 및 가족별로 조사하라"고 명령했으나(민 1:18a), 이어지는 민수기 1장 2b-3절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20세 이상 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³⁾로 한정하고(민 1:18a-19, 45b) 군대별로 파악할 것을

1) D. Kellermann, *Die Priesterschrift von Numeri 1, 1 bis 10, 10 literarisch und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ZAW 120;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

2)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민수기 1-4장의 형성 연대를 논의한 특별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3)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

지시한다. 백성은 제의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의 병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관점은 지파 지도자의 명단(민 1:4-16; 1:44)에서도 잘 나타난다. 민수기 1장 16절에 따르면, 지파 지도자는 이스라엘 회중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천인부대의 수장이다. 이러한 군사적 관점은 민수기 2장에서도 계속 유지되며, 특별히 진영의 배열은 전투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수기 1장의 병력조사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군인의 총수가 603,550명이라는 점이다. 이 숫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숫자로,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수적으로 아주 막강한 군대임을 나타낸다.⁴⁾ 전승사적으로 이 숫자는 아마도 출애굽기의 한 전승(출 12:37)을 따라⁵⁾ 12지파의 목록으로 구체화시켰으며, 동시에 병사들의 목록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⁶⁾ 민수기 1장에서 묘사된 거대한 병사의 수는 전승사적으로 역대기 역사서의 경향과 매우 유사하다(대하 13:3; 14:8; 17:14-19; 26:13).⁷⁾

(2) 인구조사의 신학적 의미

광야 유랑 기간에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의 수가 유아를 제외하고 정정만 600,000명이었다는 보도, 또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의 결과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603,550명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그 수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해 성서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출애굽

4)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원정을 위해 동원한 병력의 수는 보병 37,000명과 기병 5,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0만은 엄청난 대군이다. 한편 왕대일은 이러한 강한 군대의 목적을 '영적 투쟁을 위한 것'(97)으로 규정했다. 참조 왕대일, 「민수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96f.

5) 600,000명(출 12:37; 민 11:21); 603,550명(출 38:26; 민 1:46; 민 2:32); 601,730명(민 26:51).

6) 참조 필립 J. 부드, 「민수기」(WBC 5; 서울: 솔로몬, 2006), 50-54, 59-62.

7)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가 번성하고 강대해졌다는 관점은 포로후기 다양한 전승 집단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은 때로는 상호간에 의존적으로 형성되었고, 때로는 동시적으로 형성되었다. P. Welten, *Geschichte und Geschichtsdarstellung in den Chronikbüchern*, (WMANT 4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기 12장 37절의 거대한 인구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결과⁸⁾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결과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처음 실시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족장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신학적 관점을 넘어, 현 문맥에서는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민수기 1-4장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난 거대한 인구를 보도하고, 민수기 2-4장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민수기 1장의 거대한 인구와 다른 한편으로 민수기 2-4장의 진영의 배열, 즉 거룩한 질서는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수기 1장의 거대한 병력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민수기 2-4장의 진영의 거룩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위협에-이 위협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인구조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삼하 24; 출 30:12),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어떤 위협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작용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직면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배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위대한 국가(גְּבוּרַת נַיִם 창 12:2)를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인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⁹⁾

8) 예를 들어 왕대일, 「민수기」, 82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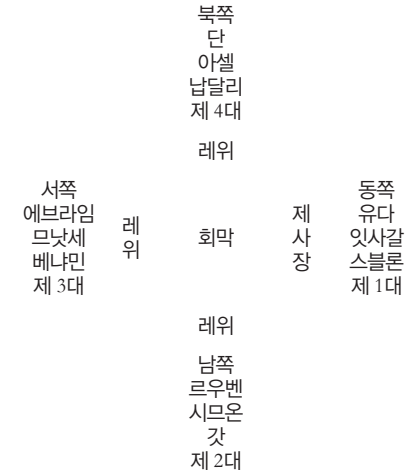
9) 이와 유사한 견해를 왕대일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거룩한 질서를 '가장 적극적인 모양새'로 해석했으며, 이러한 조직의 목적을 '하나님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을 극적으로 드러내어 열매를 맺게 하

2) 진영의 배열

(1) 민수기 2장의 진영의 배열

민수기 1장에 나타난 지파의 목록은 창세기 29-30장과는 달리 레위 지파가 빠져있는데, 요셉지파를 에브라임지파와 므낫세지파로 나누어 레위지파를 대신하게 했다. 이어서 레위지파를 병력조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민 1:47, 48-54)를 설명했다. 레위지파는 성막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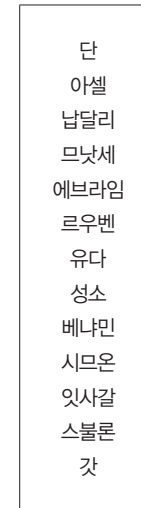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칠 때 각자 그의 진영 곁에, 즉 각자의 군기 곁에 그들의 진영 별로 막사를 쳐야 했다(민 1:52). 민수기 2장 1-34절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진영의 배열과 행군 서열을 서술한다. 그들은 각자의 군기 곁에, 또 가족별로 기를 달고, 회막을 마주보고 사방으로 진을 쳐야 했다. 먼저 동쪽, 즉 회막 입구에 유다를 배치하고, 그 곁에 잇사갈지파와 스블론지파가 진을 쳤는데, 이들은 행진할 때 제 1대가 되었다. 그리고 각 방향으로 세 지파씩 돌아가며 12지파를 모두 배치시켰는데 행군의 서열도 이와 일치한다(민 2:17). 한편, 진영의 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증거의 성막(משכן העדות) 사방에 진을 쳤다(민 1:50b, 53aα).¹⁰⁾



진영의 배열과 관련하여, 구약성서의 다른 전승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첫째,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방향으로 지파가 배열되어 있다(겔 47:13- 48:29).

기 위함'이라고 말한다(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03).

10)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진영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 이유를 현문맥으로부터 짐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사장들은 진영의 중앙에 배치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레위지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민수기 3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진영 중앙의 동쪽에 배치한다.



성전이 중앙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회막이 중앙에 있고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에스겔에서는 남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둘째, 역대기의 족보(대상 1-9장)와도 비교할 수 있다.

유다	시온	트우벤	갓	므낫세(반)	레위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반)	에브라임	아셀
----	----	-----	---	--------	----	-----	-----	-----	--------	------	----

위의 지파목록에서는 레위지파가 중심에 배열되어 있다. 만약 레위 지파를 제외한다면, 유다지파가 선두에 서며 그 분량도 가장 많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수기 2장의 지파 배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파의 순서가 다르며, 배열 형태가 에스겔과 같은 선형으로 민수기 1-4장에서와 같은 원형이 아니다.

배열 형태만으로 형성 연대를 유추해본다면 아마도 에스겔-역대기-민수기 1-4장의 순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진영 배열의 신학적 의미

민수기 1-4장에서 제시하는 진영의 배열과 구조는 성전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승사적으로 성전과 그 성전이 위치한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은 온 세계가 시온을 향해 순례하는 비전적 광경에서 이미 나타난

다.¹¹⁾ 이사야의 시온산 순례의 비전(사 2:1-5)에서는 물리적 중심으로 부터 가치의 중심으로 전환된 성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경에서 더욱 발전하여 성전과 그 성전이 위치한 시내산이 우주의 중심으로 자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특별히 제사장 문서-P-에서는 시내산에서의 성전을 향한 동심원적 세계/우주상-창조(안식일)-노아(무지개의 약속)-아브라함(할례)-시내산(이동성전)-을 그리면서, 성전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¹²⁾ 성전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관점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무수한 민족들의 아버지’, 그리고 ‘민족들의 왕’의 약속(창 17장)의 확장으로 이해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민수기 1-2장에서의 병력조사와 진영의 배열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을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와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성전 사상과 연계된 정신적 가치의 힘으로 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위협적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군대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³⁾ 이러한 점은 레위인들의 진영 배열과 그들의 직무 규정을 곁잡함으로써 더 분명해진다.

3) 레위인들의 직무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민수기

11) 시온을 향해 몰려오는 행렬은 포로기의 어두운 시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포로기 전환기의 귀향 행렬 모티브에서 발전하였다(사 49:8-23). 이사야 60장 3절에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몰려 올 것을 예언한다. 이어서 이사야 60장 4-9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행렬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몰려오고(사 60:4b), 낙타행상들의 행렬이 몰려오고(사 60:5-6), 가축무리들의 행렬이 몰려오고(사 60:7) 그리고 선박의 행렬이 몰려오는 광경을 묘사한다(사 60:8-9). 시온은 세계의 중심이며, 이 중심을 향해 사람과 재물이 몰려오고 있다. 예루살렘이 순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 곳으로 몰려올 것을 기대한다(렘 3:17). 그러면 그 곳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예배하는 집’이라 불려 질 것이다(사 56:7).

12) 참조 앤더슨/이성배(옮김), 『구약성서의 이해III』(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3), 72-76. 원제는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또 한동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을 참조하라.

13) 한동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

3장에서는 성전 기구의 관리의 직무를,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 및 기구의 운반 직무를 묘사한다.

(1) 민수기 1장에서의 레위지파의 직무이해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증거의 성막¹⁴⁾과 그 곳의 모든 기구들의 관리(민 1:50aβ)
2. 성막과 그 곳의 모든 기구들의 운반(민 1:50aγ, 51a)
3. 이것을 위한¹⁵⁾ 수종/봉사(מִשְׁמֵר)

(2) 민수기 3장에서의 레위지파의 직무이해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제사의 직무(hnhk)¹⁶⁾는 제사장들¹⁷⁾에게만 부여된 권리이다(민 3:1-4, 10aβ). 따라서 레위인을 제사장의 수하에 두어(민 3:6)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의적 직무의 보좌와 회막(מִזְבֵּחַ אֹהֶל מוֹעֵד)의 기구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데(민 3:7-8) 레위인의 직무가 회막의 기구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또 레위지파의 인구조사¹⁸⁾와 함께 진영의 배열과 그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14) 하나님의 거처를 민수기 1장 1aβ절에서는 회막(מִזְבֵּחַ אֹהֶל מוֹעֵד)으로, 민수기 1장 50aβ, 53aα, 53b절에서는 증거의 성막(מִזְבֵּחַ אֹהֶל מוֹעֵד)으로 그리고 민수기 1장 50aγ, 50b, 51aα, 51aβ절에서는 간단히 성막(מִזְבֵּחַ אֹהֶל)으로 언급한다.

15) וְיִשְׂרָאֵל יָדָם (그들은 그에게 수종을 들어야 한다)에서 3인칭 단수 접미어(그에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모세나) 아론이나, 혹은 성막을 가리킬 수 있다. 언어 용례로 보아 아론을 가리키나, 문맥으로는 성막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16) 제사장 직무(מִשְׁמֵר) -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부여된 권리이며(출 29: 9; 40: 15; 민 18: 1, 7; 25: 13), 레위인들에게 금지된 권리이다(민 3: 10; 16: 10), 그러나 신명기 전통에서는 레위인들에게도 부여된 권리가(수 18: 7).

17) 민수기 3장 6절의 아론, 민수기 3장 9, 10절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18) 그들의 가족과 가문별로 조사하되,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각 가문별로 조사하게 했다

게르손 가문의 직무 규정(민 3:23-26)

고핫 가문의 직무 규정(민 3:29-31)

므라리 가문의 직무 규정(민 3:29-31)

제사장의 직무 규정(민 3:38)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뒤쪽, 즉 서쪽에 진을 친다(민 3:23). 그들의 직무는 성막, 천막, 회막 출입문의 휘장, 안뜰의 휘장, 안뜰 출입문의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다(민 3:25-26).

고핫 가문은 성막의 측면, 즉 서쪽에 진을 친다(민 3:29).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다(민 3:31).

므라리 가문은 성막의 측면, 즉 북쪽에 진을 친다(민 3:35). 그들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 그 곳의 띠, 기둥, 받침과 안뜰 사방 기둥들, 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일이다(민 3:36-37).

그리고 제사장¹⁹⁾은 성막의 앞면, 즉 동쪽에 진을 친다(민 3:38). 이들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3) 민수기 4장에서의 레위지파의 직무이해

민수기 4장에서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의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명하셨다(민 4:1-2). 그러나 실제 인구조사의 결과는 레위지파의 구체적인 직무를 먼저 언급한 후에 보도한다. 이번에도 일반 이스라엘 회중의 인구조사(민 1:18a-19, 45b)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민 4:3, 23, 30)로 '30세 이상에서부터 50세까지'로 제한하였다.²⁰⁾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동

19) 여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언급되어 있다.

20) 민수기 3장과 4장에서의 레위인의 인구조사에는 연령 차이가 있다. 아마도 전자는 조세를 위해 확대된 형태를 취하며, 후자는 직무를 위해 필요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다. 한편 민수기 8장 23-26절에서는 25-50세

할 때 필요한 운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었으며(민 4:3bβ), 레위지파의 직무를 가문별로 규정하고 있다(민 4:4-33).

- 고핫 가문의 직무 규정(민 4:4-15)
- 게르손 가문의 직무 규정(민 4:21-28)
- 므라리 가문의 직무 규정(민 4:29-33)

고핫 가문의 직무는 민수기 4장 15a에서 그들의 직무를 총체적으로 언급한다. 고핫 가문의 자손들은 진영이 행진할 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한다. 즉 그들이 운반해야 할 기구들은 증거궤(민 4:5ayb), 진설병의 상과 그 기구들과 진설하는 떡(민 4:7), 등잔대와 그 기구들(민 4:9),²¹⁾ 금제단(민 4:11), 제단과 제단의 기구들(민 4:13, 14) 등이다. 또한 고핫 가문의 자손들은 지성물을 관리(민 4:4b)하는 직무도 맡았다.²²⁾

게르손 가문의 직무는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그 위의 해달(가죽)의 덮개, 회막 문의 휘장, 안뜰의 휘장, 안뜰 문의 휘장과 그것들의 줄들을 운반하는 것이다(민 4:25-26a). 그들의 직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을 감독했다.

므라리 가문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과 안뜰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줄들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것이다(민 4:31-32a).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로 규정하고, 역대상 23장 24, 27절; 역대하 31장 17절; 에스라 3장 8절에서는 2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참조. 붓드, 『민수기』, 112-123).

21) 기구의 관리와 운반의 직무와는 달리 등유, 향, 관유 및 곡식 제물의 관리는 아론의 아들 엘아살의 직무에 속한다.

22) 지성물을 다루는 동안 일어 날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민수기 4장 17-20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룩한 질서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않으며, 다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4) 레위인 직무 규정의 신학적 의미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경계가 나뉘어져 있다. 민수기 3-4장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상세히 규정-오직 레위인들만이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또 도살과 같은 제의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성전이나 제의적 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차단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사이의 거룩한 분리의 가치가 보다 굳건해졌다.²³⁾

민수기 1장 51-53절에서는 외인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외인이 성막에 접근하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민 1:51b, 53aβ; 3:10b).²⁴⁾

민수기 3장 1-4절에서는 아론의 장자인 나답과 차남인 아비후의 죽음을 보도한다. 이들은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야훼의 처벌을 받아 죽었다(레 10:1-3; 민 26:61). 이들은 거룩한 질서를 파괴시켜 하나님의 존엄을 손상시켰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 에피소드는 진영의 질서와 직무의 질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23) 거룩한 분리의 가치는 고대의 타부 신앙에서부터 있었으나,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적 가치로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성전 규정에 나타난 거룩한 분리의 가치는 계급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포로기와 포로기 전환기의 가치와는 구별된다.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을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경계가 지워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장벽이 형성되었다.

24) 여기에서 외인이란 출애굽기 29장 33절(타인/무자격자); 출애굽기 30장 9절(다른 향/규정에 맞지 않는); 출애굽기 30장 33절(타인/부적절한 사람); 레위기 10장 1절(다른 불/적법하지 않는, 무자격의, 불법적인); 레위기 22장 10, 12, 13절(일반인/제사장이 아닌 자); 민수기 1장 51절(타인/자격이 없는 자; 비레위인); 민수기 3장 4절(다른 불/적법하지 않는, 무자격의, 불법적인; 참조 레 10:1; 민 3:4; 민 17:5[한 16:40]; 민 26:61); 민수기 3장 10절(타인/자격이 없는 자; 제사장이 아닌 자); 민수기 3장 38절(타인/자격이 없는 자; 제사장이 아닌 자); 민수기 17장 5절(한 16:40; 다른 사람/적법하지 않는, 무자격의, 불법적인); 민수기 18장 4절(타인/자격이 없는 자; 비 레위인); 민수기 18장 7절(타인/자격이 없는 자; 제사장이 아닌 자); 민수기 26장 61절(다른 불/적법하지 않는, 무자격의, 불법적인); 신명기 32장 16절(다른 신).

레위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의 경계 지음은 한편으로는 성전의 직무를 온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함이다. 즉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펼쳐지는 거룩한 질서가 세속성(부정한 것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²⁵⁾

(5) 시내산 전승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경계 지음의 의도와 목적

시내산 전승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이동 성전, 즉 회막)에 항상 계시지 않고 필요시 강림하시는 모습이다(혹은 이제까지 계시지 않다가, 마침내 시내산의 회막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29장 42-46절에서 회막(만남의 장막)에 대한 설명에서 전하고 있다.

회막 문 앞, 야훼 앞에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불러 모아/회집하여)²⁶⁾ 만날 것이며, 또 그곳에서 내가 네게 말을 전할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러 나타날 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해 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 교류를 하게 되며, 파괴되었던 계약을 복원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로써 야훼의 영

25) 세속성으로부터 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포로후기에 있었던 번제와 속죄제의 위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포로후기의 초기에는 번제가 이스라엘의 공적 제사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공적 제사의 중심이 점차 온갖 종류의 부정으로부터 거룩성을 지키려는 의지로 인해 온전한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번제로부터 범죄와 부정으로부터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속죄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26) וָאֵל (정해진 시간에 회집하여) 만나다.

광이 이동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회막이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 민수기 1-4장에서와 같은 엄격한 경계 지음과 같은 - 특별한 선행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혹은 은혜를 수용하는 태도만이 요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바벨론과 대치하면서, 중심적인 신앙 전통으로 부상한 안식일(창 2:1-3)과 할례(창 17장)와 같은 전통적인 신앙규례를 준수하면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세계와 구별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었다.²⁷⁾

시내산 전승 전체에 흐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현존해 계신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존재했으며, 포로기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포로후기에 다시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일반 백성이 성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특별히 지성소로의 접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의 임재(혹은 강림)에서 보여준 '하나님 통치의 자유'의 사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입장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통치의 온전한 구현'과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민수기 1-4장은 성전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다면,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는 세계의 어떤 위협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신앙적 가치'를 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할 때, 진정으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27)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한동구, "안식일 이해의 변천사와 종교교육전통";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75-102, 특히 87-89를 참조하라.

3. 가치 중심의 국가: 에스겔의 새로운 비전과 국가 개혁 프로그램²⁸⁾

포로기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황은 바벨론의 지배에서 페르시아의 지배로 넘어갔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사야 집단(제 2이사야)은 내부의 질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절망에 빠진 동료 시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 이와는 달리 에스겔 집단은 새로운 이상적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에스겔 집단의 새로운 국가 비전은 단순히 옛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에스겔 집단은 이상적인 국가상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²⁹⁾ 따라서 에스겔 집단의 개혁 프로그램 속에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의 옛 국가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당시의 국제적인 정황에서 지향해야 하는 국가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려는 본능적 노력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구약성서는 무한 경쟁에 의해 야기된 양극화³⁰⁾와 같은 부정적 가치관과 싸운 책이다. 왕조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국내의 양극화와 싸웠으며, 국가가 망한 후에는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에서 힘의 논

리와 군사적 논리에 맞서 싸웠다. 에스겔 집단도 이러한 부정적 가치와 맞서 싸운 자들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경영을 하나님의 통치 하에 두고자 했다. 하나님의 신성, 즉 거룩성을 삶의 진정한 원천으로 삼고자 했다. 에스겔 집단은 단순한 종교공동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를 추구했다.

에스겔 집단의 이상은 오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거룩성과 말씀으로 확대했으며, 추구하는 범위를 우주적 영역으로 확대했다. 이 우주의 중심(시내 산 계시)에 거룩성을 두고 있다.³¹⁾

4.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대(連帶): 온-이스라엘 사상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는 일반 백성-레위인-제사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온-국민의 연대를 주장한 신명기 개혁운동 - '한 민족-한 성전-한 하나님 예배'³²⁾ - 에서도 볼 수 있다. 온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연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연대는 '온-이스라엘' 사상을 주장한 역대기 역사서³³⁾에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신명기 개혁운동의 경우 실제 전체 국민들이 이 연대에 모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역대기 역사서의 경우 일반

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한동구, "에스겔의 영토 사상과 통일 한국의 모양(像),"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0집 (2009년 1월), 269-292과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을 참조하라.

29) 이런 뜻에서 재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30) 21세기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근거하여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상품 시장이 단일화되다 경쟁은 매우 치열해졌다. 그 결과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양분 구조로 재편된다.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부국과 부국내의 소수의 부자들, 또 경쟁에서 패한 다수의 빈국과 빈국 내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양극화되어 갔다. 이 양극화의 현상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역사 이래로 전례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역전시킬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31)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 특히 20-21.

32) 신명기 개혁운동의 정신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4).

33) 역대기역사서의 후기편집층에서 볼 수 있다. 한동구, 「역사서 해석과 역사이해」 (서울: 동연, 2012), 509-540; 배희숙, "역대기하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한 개혁의 왕 히스기야(대하 29-32장)", 「그말씀」 208호 (2006년 10월), 48-61; 배희숙,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재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권 (2011년 1월), 75-96;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집 (2006년 12월), 80-97.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헬레니즘 시대에 일반 백성의 대표격인 게루시아들은 제사장 계급과 대립적이었으며 ‘온-이스라엘’의 연대에 동참하지 않았다.³⁴⁾

1) 온-이스라엘의 참여

전통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국가의 일에 참여한다. 물론 그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전을 지키는 일이 군사적 직무라는 점에서 전투에 참여한 것과 유사하다.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성전을 지키는 직무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온-이스라엘은 평등해 보인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다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 소속성과 야훼신앙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점을 내세워 종교적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에스겔의 경우, 종교적 가치를 통하여 국가의 회복을 주장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정신적 가치의 중심인 성전을 지키므로써 국가를 지킨다는 이념적 주장을 전제로 한다. 포로후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적과의 대립적 상황에서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이던 정신적 가치로 저항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레위인의 지위변화와 온-이스라엘 사상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하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민 3:9). 그럼에도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34) 여기에서도 이념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주장하지만, 만약 계급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실제로 이러한 주장과 같이 일반 백성들이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첫째, 진영의 배치와 관련하여 레위지파의 세 가문-게르손 가문, 고탓 가문, 므라리 가문-이 성막의 측면(남쪽과 북쪽)과 뒷면(서쪽)에 배치되고, 제사장은 성막의 전면(동쪽)에 배치되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제사장이 배치되기는 하였으나, 성막과 동일한 거리에 레위인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대등하게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우르는 범종교인으로서의 레위지파를 전제한다.³⁵⁾

둘째, 민수기 3장 11-13절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했다고 보도한다. 즉 야훼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한 업무를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선택한 것이다.³⁶⁾ 이러한 신학적 평가는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하는 대신,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장자의 속전 값(1인당 5세켈; 민 18: 15-16)을 레위인들에게 돌리는 조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레위 남자의 등록 목록(민 3:14-39)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등록 목록(민 3:40-45)이 필요했다. 또 민수기 3장 40-51절은 민수기 3장 11-13절의 후속 조치로써, 부족한 제사장의 수입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지위변화는 보다 평등한 제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국가형성 이전부터 만배를 야훼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의 만배를 야훼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다.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

35) 출애굽기 6장 14-25절; 민수기 26장 58-59절; 여호수아 21장 4, 10절; 역대상 6장 - 제사장과 레위인의 통합과 정치적 지도자인 모세(아마도 총독의 상징적 표현)와 제사장의 통합의 시도는 아마도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이 페르시아의 (지방)국법으로 상승되는 과정에서 제사장-레위인을 아우르는 지도층 전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물로 보여진다.

36) 참조. 민수기 8장 5-26절.

로 바꾸어(물어내어) 바치거나, 아니면 죽여야 한다. 그리고 만이도 물어내야 하는데, 아마도 동물을 대신 바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명기 15장 19-23절의 포로기 이전의 규정(신 12:6)에는 만배 헌물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만이를 바쳐야 한다는 규정은 빠졌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아들이나 딸을 불살라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유아 제물의 관습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신 12:31). 열왕기하 3장 27절은 모압 왕이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장자를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린 것을 보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하스(왕하 16:3)와 므낫세 왕(왕하 21:6)도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쳤다.

성결 법전은 만이를 제물로 요구하지 않는다.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6절에서는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여기에서 만이 제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신명기와 성결 법전에서는 만이 헌물을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써 기원전 7세기까지 있었던 인신 제사를 거부했다. 이러한 영향은 에스겔 20장 25-26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만이, 만배 제물은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미 6:7).

그러나 만이 헌물에 대한 내용이 포로 후기의 문헌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만이 헌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다양한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 태에서 처음 나온 것 - 사람이든 짐승이든 - 은 모두 야훼께 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민 18:15). 다만 처음 태어난 사람이거나 처음 태어났으나, 부정한 짐승의 경우 대속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민 18:15).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은전 5세겔로 대속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에 대한 인두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만이에 대한 대속 헌금과 만배 헌물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더 강화되었다. 출애굽기 13장 2-3, 12-14절에서는 만이 헌금과 만배 헌물의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다. 여기에서는 구원사적으로 동기-야훼께서 이집트의 장자는 모두 살해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다-가 보강되었다.³⁷⁾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5절에서는 야훼께서 애굽의 장자와 만배를 치신 사건이 직접적으로 만이 헌금과 만배 헌물의 동기가 됨을 말하고 있다.

출애굽 전승은 이스라엘 역사과정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해석되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나 관습들이 출애굽 전승과 결부되어 구원사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포로기 이전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을 통해 강화되었다(신 15:1-8). 제2성전 공동체에서는 그들의 신학적 기초를 선조들의 약속과 애굽에서의 해방에 두고 있다. 포로 후기에는 인간의 제의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면서 만배에 대한 구원사적인 재해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민수기 3장 11-13절에서는 성전의 거룩한 업무를 위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³⁸⁾ 야훼의 제의적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은 흔들여 바치는 요제로 야훼 앞에 드러졌다(민 8:11).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는 일종의 성전 국가로, 종교와 정치를 책임지는 대제사장과 재정을 책임지는 성전 재정관리관(Epistatēs)의 이원적 행정체계를 유지했다. 이로써 대제사장의 권한이 페르시아 시대에 비해 축소되었다. 대제사장은 이전 페르시아 시대에 누리던 권한들을 다

37) 출애굽기 4장 22, 23절; 11장 5절; 12장 12, 29절; 13장 15절; 민수기 33장 4절; 시편 78편 51절; 105편 36절; 135편 8절; 136편 10절.

38) 참조. 민수기 8장 5-26절.

시 되찾고자 전통의 회복과 온-이스라엘의 연대를 주장한다.³⁹⁾ 토라에 근거한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가대와 같은 새로운 예배 활동이 생겨났다. 이를 통해 예배를 위한 시편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화의 과정을 레위인이 주로 담당했는데,⁴⁰⁾ 그 결과 레위인의 지위가 다시 한 번 상승되었고, 레위인의 명예는 한층 더 상승되었다. 이와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은 많이 해소되었다.

5. 민수기 1-4장의 형성 연대(年代)

민수기 1-4장의 형성연대의 결정을 위해 역대기 후기편집층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역대기 후기편집층에서는 헬라 문명의 위협에 대항하여, 온-이스라엘이 연대하여 전통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역대기에서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위인의 지위 향상은 필연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스겔과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선형구조로 보호하고 있으나, 민수기 1-4장에서는 원형구조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기를 전제로 한다. 온-이스라엘 사상과 관련하여 역대기에서는 백성의 지도자인 게루시아의 참여가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종교인들 중심으로 실현되었으나, 민수기 1-4장에서는 종교인들과 백성이 온전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완전한 상을 보여준다.

역대기와 민수기 1-4장에서는 외세의 위협이 아직 결사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형성은 모두 안티오쿠스 IV(기원전 175-163년)의

39)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라. 한동구, 「역사서 해석과 역사이해」(서울: 동연, 2012), 454-540.

40) 새롭게 증대된 레위인들의 활동에 대해 역대기 역사서는 다양하게 보도한다. 법례 운반자(대상 15:2), 성가대 구성원(대상 9:33f.; 16:4; 대하 5:12), 성전 수위대, 창고 관리인(대상 26:1), 말씀의 교육자(대하 17:7-9; 참조. 대하 31:4; 34:30).

대 박해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민수기 1-4장의 형성연대를 역대기 후기편집층의 형성 연대-헬레니즘의 지배 후 100년경, 즉 기원전 약 200년경-의 바로 직후나 동일한 연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¹⁾

6. 요약과 결론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제의 공동체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대한 수를 이루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성전을 중심으로 배열하였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성전 기구의 관리를 부여하여, 레위지파의 각 가문에게 하달하였으며,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과 그 기구 운반의 직무를 부여하여, 레위지파의 각 가문에게 하달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 진영의 배열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성전과 성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와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온-이스라엘이 성전과 진영 배열에서 제시하는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가치를 지켜나감으로써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신적, 신앙적 가치에 근거하여 물질적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 참고문헌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집 (2006년 12월), 80-97.

41)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편집층과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한동구, 「역사서 해석과 역사이해」, 537-539을 참조하라.

배희숙, “역대기하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 ‘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개혁의 왕 히스기야(대하 29-32장)”, 「그말씀」 208호 (2006년 10월), 48-61.

_____,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재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권 (2011년 1월), 75-96.

부드, 필립 J., 「민수기」 (WBC 5; 서울: 솔로몬, 2006).

앤더슨/이성배(옮김), 「구약성서의 이해 III」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3). 원저는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07).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

_____, “에스겔의 영토 사상과 통일 한국의 모양(像)”,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0집 (2009년 1월), 269-292.

_____, “안식일 이해의 변천사와 종교교육전통”,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75-102.

_____, 「역사서 해석과 역사이해」 (서울: 동연, 2012).

_____, 「신명기 개혁운동」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4).

Kellermann, D., *Die Priesterschrift von Numeri 1, 1 bis 10, 10 literarisch und traditionsgehistorisch untersucht* (BZAW 120;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

Welten, P., *Geschichte und Geschichtsdarstellung in den Chronikbüchern* (WMANT 4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검색어

거룩한 분리
거룩한 질서
레위인의 직무
민수기 1-4장
시내진승

The Dream of Israel Implied in Their Camping (Numbers 1-4)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Numbers 1-4 to find what theological significance could be presented in the sacred organization and order in the Israelite camp. Particularly it aims to find what ideal nation is sought after by the Israelite religious community.

An exegesis of the texts in Numbers 1-4 is made in detail. A further comparison with other thoughts in the Old Testament is also made in the history of their traditions, which is a must in the present study.

A theological question is asked concerning the total number of the men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 in Numbers 1, in which the numbering of the Israelites is mad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sus in Numbers 1 and the arrangement and order of the

camp in Numbers 2-4 is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ological meaning of the camp arrangement in Numbers 2 are examined. The Israelite camp was arranged on every side of the Tent of Meeting, with the Levites standing in the center.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arrangement is a development from the thoughts abou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proposed by the prophets.

The rule of the Levites' duties is examined. Their overall duties are prescribed in Numbers 1, and they are, in Numbers 3, assistants to ritual duties and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furnishings in the Tent of Meeting. In Numbers 4 their duties relate to carrying the tabernacle and its furnishings.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arrangement and the Levites' duties is examined. The arrangement and their duties not only make manifest the value of the sacred separation but also serve to realize it completely. The ultimate value of the sacred separation lies in setting up a nation of value. The ritual community of Israel could develop as a truly strong nation when it was based on mental and religious values, not on material power.

The present study, therefore, argues that Numbers 1-4 imply the aspiration to build up a strong nation by seeking mental values, and that it is an aspect of the theological tendencies of the Sinaitic tradition and post-exilic period.

Keywords

sacred separation
sacred order
the Levites' duties
Numbers 1-4
the Sinaitic tradition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